

社說

광주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막을 길 없나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잇따른 광주 입점 추진으로 재벌 대기업이 지역 상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살리기 광주네트워크와 광주스피카마켓협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 추가 입점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북구 신원동 첨단 2지구 부지 중 8천500여㎡를 사들이고 지난 3일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5천134㎡)의 창고형 회원제 할인점 건축을 위한 건축계획심의를 구청에 요구했다. 최근 보도를 보면 롯데 등 3개 대형마트의 매출규모는 1천500여개의 전통시장 판매액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매출액은 1990년 7조6천억에서 2010년 3조7천억으로 4배나 쉰 배 늘었다. 전통시장 매출액은 같은 기간 46조2천억에서 24조원으로 50%정도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은 2003년 1천695곳에서 2010년 1천517곳으로 7년 만에 178곳이나 사라졌다. SSM사업체 수는 대형마트 증가

세가 정해진 2008년 이후로 급증하면서 그해 485개에서 2009년 677개, 2010년 928개, 지난해는 1천145개로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SSM의 매출규모는 2003년 2조6천억에서 2009년 4조2천억, 2010년 5조원, 지난해는 6조1천억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대기업들의 지역상권 장악에 도를 넘어서면서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골목상권까지 속속 문을 닫고 영세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지역골목상권까지 잠식해 영세상인들의 골목상권이 붕괴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실 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광주의 고용상황을 볼 때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SSM까지 업종과 업태, 지역을 가리지 않는 대기업의 과도한 진출은 규제돼야 한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이번이 마지막 돼야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큰데다 그동안의 각종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이번 정부의 대책 및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총리는 6일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쟁겨나갈 각오”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20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하자 한달 반 만에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물밑에 감춰진 모든 폭력들을 들춰낼 생 각”이라며 “무엇보다 교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폭력 근절대책도 온 사회가 나서야만 한다”며 “그동안 대책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도 다름아닌 짐을 지우고 모두가 방관한 탓이 크다”고 자성했다. 김 총리의 학교폭력 대책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내달 개

학을 앞두고 사전에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고, 제반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수많은 대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일회성에 그친데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흐지부지 되곤 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천이 관건이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감추는데 급급했던 관행들도 없애야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폭력서클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무엇보다 교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폭력 근절대책도 온 사회가 나서야만 한다”며 “그동안 대책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도 다름아닌 짐을 지우고 모두가 방관한 탓이 크다”고 자성했다. 김 총리의 학교폭력 대책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내달 개

편집국에서

이경수 부국장 겸 사회부장



그래도 세상이 아름다운 까닭은

다.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는 이들 시리즈는 ‘전라도 정신’을 발굴, 전파하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기자는 ‘전라도사람들’을 맡아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처음 이 시리즈를 기획했을 때 우리팀은 ‘성공한 사람보다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 그 성공이 자신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고루 나눠지고, 특히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지역의 40~50대’로 범위를 한정시켰다. 나만 잘사는 사람, 나만 성공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까지 딱 5명을 취재했을 뿐인데, 새로운 취재원과 만남이 기다려진다.

그들은 다들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열정을 쏟아내며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첫 번째로 소개된 잡미술관의 김광욱 관장은 미술관 하나로 시골마을이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었다. 함평군 해보면 산내리에 자리잡은 이 작은 미술관은 이제 마을주민들의 사랑방은 물론이고 시골의 활마니·할아버지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마을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주민들의 삶과 생활을 미술관이 모두 끌어안은 결과였다. ‘돈’을 쫓고 ‘돈’에 의해 기획되는 도시의 미술관에서는 결코 이를 수 없는 예술공동체를 이곳에서는 현실화했다. 영광 ‘여민동락’의 강위원 대표는 농

기고



이철호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생명줄 완강기에 관심 갖자

로 설치되기도 한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이고,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완강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주위에 그렇게 많은 소방시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이 소방시설들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 평소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무관심이 우리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도배를 하면서 무심코 화재감지기 위에 풀칠을 해서 정온식감지기가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연기감지기의 구멍을 막아 버리기도 한다. 벽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헤드에 장식물을 걸기도 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 소화기의 옆면을 한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소화기 사

용방법이 손쉽게 적혀 있는데도 소화기의 사용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소화기를 사용할 자신이 없다고도 한다. 이번에 사고가 난 완강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완강기란 건물 화재 시 계단이나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구로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에 필히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박스 앞에는 사용방법이 붙어 있어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하면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다급할 때는 설명서를 읽어볼 여유가 없으므로 평소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다. 완강기는 특히 잘못 사용하면 이번 사고처럼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2009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60대의 여

인이 7층에서 간이완강기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숨진 일도 있었다. 완강기를 식탁에 고정했던 것이다. 성탄절 새벽의 비극은 완강기 벨트를 가슴에 고정시키지 않고 손으로 잡고 내려온 것이 발단이었다. 완강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보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또 안전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써 거드랑이 밑에 건다. 두 팔을 위로 올리면 벨트가 빠져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손과 발은 벽을 향해 뻗치며 내려간다. 완강기에는 조속기가 달려 있어 몸무게에 의해 천천히 하강하기 때문에 주의사항만 잘 유의한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 소방시설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고 최선의 장비들이 비치되어 있다면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요 오히려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독자투고

운전 중 흡연행위는 교통안전에 악영향

운전 중 흡연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척 위험한 일이다. 운전 중 흡연을 하게되면 운전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만큼 방어운전을 할 수 없게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담뱃재를 타는 과정에서 불씨가 차량내부에 떨어질 수도 있고, 타운 담배꽂이를 차량 밖으로 아무렇게나 버릴 경우 후미차량 내부로 빨려 들어가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 안전 운전에도 상당한 위험을 가하게 된다. 때로는 운전 중 버린 담배꽂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기까지 한다.

운전 중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주듯 한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 10명 중 3.6명꼴로 운전 중 흡연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냈거나 본인이나 상대방의 흡연으로 사고를 당했다는 결과를 보더라도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운전 중 흡연행위는 흡연자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김덕형·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

저혈당 응급처치법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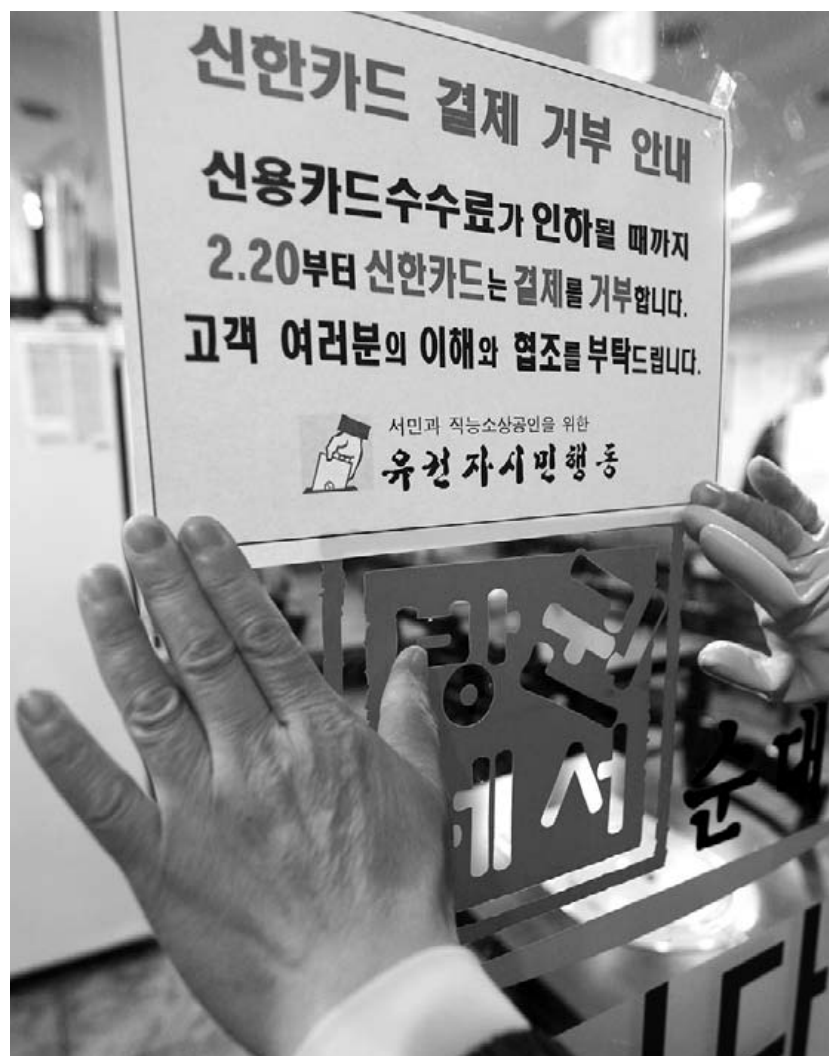
정상인에서 혈당은 약 70~150mg/dL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우리 몸의 각 부분에 보내지는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이 된다. 저혈당증이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당이 정상 수치 이하로 감소함으로써, 신체기관에 공급되는 포도당의 약이 감소하여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를 일컫는다. 저혈당이 발생하면 뇌와 신경기관에 공급되는 포도당이 부족해지고, 뇌신경계는 에너지 부족을 느끼게 되어 신체의 자율신경계를 작동시키게 된다. 그 결과로 현기증,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해지면 간질 발작과 의식 소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수도 있다. 또 저혈당

극복하기 위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에 따라 혈압상승, 맥박수 증가, 가슴 두근거림, 떨림, 불안감, 식은땀, 공복감, 이상 감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당분을 가능한 빨리 섭취를 해야 한다. 흔하게는 사탕을 먹거나 꿀, 설탕물, 주스같은 음료수를 마시면 된다. 당뇨가 있는 본인이나 가족들은 저혈당 증상을 알고 그에 대한 응급조치를 기억하여 저혈당쇼크에 빠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다. 지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다음번에 진료시에 저혈당이 생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받길 바란다.

/강병만·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속 세상 ‘신용카드 수수료 안 내리면...’



유흥업소, 학원, 미용실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 업종이 포함돼 있는 전국 자영업 연합체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지 않을 경우 업계 1위인 신한카드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6일 오후 한 음식점에서 신한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생활의 경험,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독자투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 지켜야

화재 출동을 나가면 대체적으로 주택 화재가 많다. 분말소화기 한 대만 비치돼 있더라도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단독경보형감지기 하나만 설치돼 있었다면 미리 화재를 알고 대피할 수 있었을 사고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신규주택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설치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된다.

군이 법률이 변경되기 때문이 아니라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단독경보형감지기 하나 설치하는 것은 자신과 함께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것을 독자들이 인지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김재훈·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눈길만큼 위험한 빗길운전

겨울철 눈 내릴때와 마찬가지로 운전 중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빗길운전이다. 눈이나 비가 올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와 달리 속도를 줄여 운전하는 것이다. 비에 젖은 도로는 맑은 날에 비해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늘어나게 되므로 비의 양에 따라 평상시 속도에서 20%~50%까지 감속해야 한다. 따라서 평소보다 차간거리를 길게 유지하고 급제동이나 급가속은 피하고 자주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

디스크의 물기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와이퍼블레이드 점검은 빗길 안전운전의 필수요소이다. 비 오는 날은 도로의 모든 환경이 평소보다 열악하므로 운전 실력을 과신하지 말고 도로 상황에 맞는 안전하고 침착한 운전을 해야 한다. 기술운전자 아닌 정보운전자로 겨울철 비가 오는 날에 사고 없는 안전한 빗길운전이 됐으면 한다.

/황인준·광주지방경찰청 27동대

◀ **광주 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idaily.com

회 장 馬亨烈 사장·발행·편집·인쇄인 徐榮振 주 필 南成淑 편집국장 朴俊洙

503-020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1-21번지 대표전화 (062) 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 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취재부 650-2060 마케팅사업국 650-2072  
 정치부 650-2030 문화여성부 650-2067 기획관리실 650-2010 광고 650-2099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언론부 650-2021 FAX 650-2016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서울지사 (02) 786-9488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광주가11(라) 제1호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